



“오늘의 난관 한마음으로 뭉치면 반드시 극복”

2009 인쇄인 신년인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공동 주최의 '2009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쌍림동의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 홍우동 인협회장, 이충원 연합회장, 조정석 서울조합 이사장, 김진배 기술협회장 등 4단체장들이 인쇄인들을 맞고 있다.
-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인쇄인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우동 인협회장, 이충원 연합회장, 조정석 서울조합 이사장,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인사회에는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재단 이사장, 채복기·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허철중·민재기 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양철우 교학사 회장, 김진배 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이기훈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 최종찬 한국기록물·복사조합 이사장, 오규남 한국인쇄학회 회장, 심웅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이원표 경기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등 내외 귀빈과 많은 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와 공동 주최자인 홍우동 회장 이충원 회장 조정석 이사장의 인사말, 김재운 의원의 축사, 축하 락 자르기, 채복기 인쇄연합회 전회장의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내외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올해는 2008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 희망과 용기를 일구는 일에 단체들이 앞장서고 인쇄인들과 각 단체가 굳게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원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걱정 보다는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은근과 끈기라는 저력을 바탕으로 인쇄문화인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이제는 인쇄문화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을 탈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서비스산업으로써 그 면모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서도 마음이 밝을 수 없는 것은 세계의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견뎌온 선조들의 슬기를 본받아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인쇄업계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기축년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김재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통과 창조가 살아있는 산업이 인쇄이며 인쇄는 수출효자산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쇄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될 것이며 영역이 커질 뿐만 아니라 역할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쇄문화산업진흥법도 제정된 만큼 인쇄인들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실천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오늘 이렇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인쇄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소띠의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인쇄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해 오시느라 애써 오신 인쇄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해 인쇄문화산업의 위상제고와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일산 컨텍스에서 국제인쇄산업전을 개최하는 한편 동 기간에 7개국이 참여한 국제인쇄컨퍼런스를 열어 인쇄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20여 곳에서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고인쇄문화와 현재의 인쇄산업을 홍보하는 특별전을 가졌으며, 중국 인쇄기술협회와의 협정에 따른 교류회의를 서울과 상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전기획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쇄업계의 미래를 연구하는 한편 프린팅코리아의 발전과 인쇄품질향상을 위한 법률적 준비와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뜻 깊은 일은 인쇄인들의 염원이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발효된 점이며 이를 근거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출판인쇄산업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됨으로서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인쇄인 여러분들이 물심양면 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올해에도 인쇄업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여 이를 발판으로 업계 공동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지 및 인쇄문화의 국내외 홍보 사업과 수출증진, 국제교류, 인쇄기자재 전시 등의 사업도 지난해에 이은 지속 사업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올해는 2008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희망과 용기를 일구는 일에는 단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인쇄인들과 각 단체가 굳게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쇄인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 1 인쇄인들이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 2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내빈들
- 3 떡을 자르고 있는 내빈들
- 4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인쇄인들